새길 명(銘) 마음 심(心), 두 언약 이야기

(히8:7~13)

7.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길 명(銘) 마음 심(心), 두 언약 이야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새길 명(銘) 마음 심(心), 명심이 바로 두 언약 이야기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는 취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 보셨지요?
일곱 살 때,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사춘기 때도 그렇지요.
다 큰 성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말 안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말 안 듣는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긴다, 위반한다, 저촉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배운바 대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행동하지 않

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왜 법을 어기십니까? 사소한 것에서라도.
그리고 왜 약속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거 이상하잖아요, 왜 약속과 법을 어기고 또, 도덕과 윤리적인 선을 넘나드는 것일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심리학도 관계가 돼있고, 윤리학, 철학, 법학, 문화인류학, 뭐 관련된 학문이 한두 개가 아니죠.
관련된 학문마다 다양한 대답을 내놓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규율, 법이나 윤리적 기준을 어기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길 명(銘) 마음 심(心)
이 새길 명(銘)자가 쇠 금(金) 변에 이름 명(名)을 쓰는데, 이 글자가 생긴 것 자체가 비문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것에서 나온 글자라고 합니다.
명심(銘心), 마음에다가 비문의 글자를 파서 새겨 넣듯이 그렇게 마음에 파서 새겨 넣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행위 차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 행동에 대한 지침이 새겨지기만 하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도 수박처럼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 안쪽으로 마음의 중심부가 있는데, 껍질의 두께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깊이 새겨져야 마음의 중심부가 지침이나 약속 등, 가르친 교훈들에 맞닿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부가 그 가르침에 닿게 돼야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공감이 일어나고, 공감이 무르익게 되면 그것을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껍질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깊이 새겨지기만 하면 행동의 문제는 염려할 게 없고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일본 사무라이처럼 할복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칼을 자기 손으로 들고 왼쪽 배에 칼을 꽂고 그어나가는 겁니다,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이겨내고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을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그 지침, 무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할복자살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마음 중심부에 가 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표피를 뚫고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르쳐 봐도 어렵고 배울 때도 어려워요.
가르칠 때도 명심하는 학생 찾기가 쉽지 않고,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볼 때도 명심하는 직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력이 결핍됐다, 아 천만에요!
명심하는 데에 타고난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왜 명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명심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명심하기 이전에 이미 이 피교육자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새겨져서 명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베푸는 가르침이 새겨지지 않거나 더 깊이 새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을 때 주의력이 결핍되고 산만해 보이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순교자 주 기철 목사님의 숭고한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 정원 좀 자그마한 언덕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주 기철 목사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새겨져 있었는데,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온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 큰 기념비에 갖가지 색의 스프레이페인트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교수님들 이하 학생들까지도 다 분개하지요, '어떤 사람이 저런 몹쓸 짓을 했는가!'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주 기철 목사님의 생애가 기록된 비문이 혹시 상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도 스프레이를 다 지우고 났더니 비문이 그대로에요.
스프레이는 비문 겉 표면에 뿌려진 거고, 비문의 내용들은 1cm 이상 깊이로 들어가서 새겨진 글입니다.
그러니 표피에 아무리 많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온통 페인트로 여지가 없이 칠한다고 해도 비문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어떤 가르침, 지침들이 한 3cm의 깊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2cm 깊이로 들어와 새겨진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부가 닿는 것은 3cm 깊이로 들어와 새겨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그 3cm 깊이로 들어와 새겨진 명심하게 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2cm 깊이나 1cm 깊이나 표피에서 멈춰진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스쳐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심이라는 문제에요.

왜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약속대로 지침대로 왜 행동하지 않는가, 명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더 앞서서 먼저 깊이 들어온 다른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명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에 명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심의 깊이는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어떤 가르침이 3cm로 새겨지고 어떤 가르침이 2cm로 새겨지고, 어떤 가르침은 표피에서 놀고 마느냐,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깊이 들어옵니까?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것과 관계된 말씀들이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 그러면 그 자식에 관한 지침들이 다른 모든 지침들을 제쳐놓는 것은 자식이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존재와 연관된 지침들이 내 마음의 내부로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 돼버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일수록 그것과 연관되거나 그런 대상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애인이 생겨 불같이 사랑하고 있는 딸자식한테, 그런 놈팽이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미 그 놈팽이 같은 애인의 말이 딸자식의 마음 중심부에 부모의 말이 새겨지는 것보다 훨씬 깊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애인의 말을 따르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는 척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애인의 말을 따라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심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와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좋아하고 마음에서 아끼는 것과 관계되거나 그 아끼는 대상에게서 주어지는 지침과 말과 약속일 때,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딸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이유가 바로 마음에 새겨짐의 문제라는 겁

니다.

자, 이러한 선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옛 언약이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은 신약, 신약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을 이해하면 기독교 전부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길 명(銘) 마음 심(心)자라는 겁니다.
옛 언약도 새길 명(銘) 마음 심(心), 마음에 새김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새 언약도 이 명심에 관계가 되는 언약이라 이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이 옛 언약 아닙니까?
'이제 계명과 율법을 너희에게 줄 텐데, 이 계명과 계명에 근거돼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만대에 복을 주리라'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왜 이 옛 언약이 깨어진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지 않았다고만 보고 옛 언약이 깨어진 이유를 끝내버리면, 이거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큰 오해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만 생각한다면 핵심을 놓친다는 얘기에요.
구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이 행위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위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행위를 한 것이지요, 다른 행위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행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이전에, 먼저 새길 명(銘) 마음 심(心)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를 안 한 것이라고 보기 이전에 행위를 안 한 이유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거에요, 옛 언약이 깨어진 것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쉐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쳐주는 기본정신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간이 되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행위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새겨 넣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게 옛 언약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키라고 해요, 다 지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근거로 한 율법을 적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율법 책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판에 새겨져 있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 마음에 복사해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 돌판에 말씀을 적어서 주셨으면 돌판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돌판에 말씀을 적어주셨지만, 이것은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전에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마음에 새겨 넣으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행동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마음에 새겨 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사해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명심(銘心), 내 마음에 새겨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내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다 새겨 넣으리라' 해서 옛 언약에서는 새겨 넣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면,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얘기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적어주셨으면, 그 돌판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을 복사해서 내 마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새겨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새겨 넣었어야 되는 게 그걸 안 해서 행동이 안 나왔던 거고, 새 언약은 우리가 새겨 넣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에서 선민들은 도대체 왜 그 말씀을 새겨 넣지 않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서처럼 그들이 새겨 넣는 일, 명심함에 소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심함에 소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말씀을 새겨 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아세라, 바알 우상을 정열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 숭배를 위한 지침들을 마음에 새겨 넣고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도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3cm 깊이로 새겨져 있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2cm 1cm로 전달이 되니까, 마음 중심에 닿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침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아세라와 바알 숭배의 지침이 더 깊이 새겨진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우상입니까?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이 벌게 한다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이 더 깊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얼 뜻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풍요와 다산, 돈 많이 버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돈 버는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더 깊이 새겨졌으니까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어느 면에서 들었느냐, 더 깊이 마음속에 좋아하고 있는 돈 버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 이사야가 얘기한 성전 뜰만 밟고 있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이 돈 버는 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협력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돈 버는 데에 관계되는 지침들만 빼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리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축복만을 사랑한 겁니다.
축복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새 언약 얘기를 많이 못 했어요.
새 언약 얘기는 바로 이 점을 주시하시는 겁니다.
행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나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하시고, 이제는 그들 바깥의 돌판, 양피지에 기록된 지침들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뚫고 들어오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사건이고 부활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약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는 거예요.
옛 언약 때는 돌에 새기시고 책에 써서 주신 지침들을 내가 마음에 새겨 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을 버는 데에 필요한 지침들만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깊이 새겨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귓등으로 스쳐지나가게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돈의 말씀입니까, 건강의 말씀입니까, 자녀 형통의 말씀입니까, 어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지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돈보다 건강보다 내 가정의 안정보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보다 더 사랑한다는 확증이 없으면 성경 백 번 천 번 읽고 날마다 QT를 해서 QT의 도사가 돼도 결국 모든 성경말씀은 먼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지침으로써 마음에 새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의 당사자들로서의 그 원죄적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으면서,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 교인 아닌 교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새 언약,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것이에요.
어쨌든, 구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확증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드러난 이유가 뭐냐?
마음에 새겨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소질과 능력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에 새겨 넣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마음에 새겨 넣지 않았느냐? 명심에 소질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다, 명심에 소질도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에 관계되는 지침들만을 묵상하면서 깊게깊게 새겨 넣었었기 때문에 옛 언약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요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고 그래서 예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 주시는 메시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새길 명(銘) 마음 심(心), 명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폐지되어지고 새롭게 수립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종일 명심의 문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